

[전지적 인턴 시점] 뉴로메카 인턴의 9 to 6 관찰



✨ 뉴스레터 특별편! 인턴의 시선으로 바라본 뉴로메카

인턴으로 입사한 뒤 지금까지, 직접 경험하며 배우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업무부터 회사생활까지, 인턴의 시선에서 바라본 뉴로메카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01. 뉴로메카로 첫 출근하기

—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6월에 입사해 현재 뉴로메카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채원입니다 😊

그동안 제약,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을 경험해 봤지만 '로봇'은 완전히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입사 전까지만 해도 로봇의 '로'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 어떻게 뉴로메카로 오게 되었는지?

팀장님의 기업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처음으로 로봇이란 분야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보고 **"어, 생각보다 유용한데?"**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생소했던 로봇 시장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전해보지 않았던 B2B 마케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을 안고 뉴로메카에 오게 되었습니다!

02. 인턴의 9 to 6

마케팅팀 인턴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상 콘텐츠 제작부터 데이터 분석, 그리고 성수동에서의 소소한 즐거움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

- **09:00 AM | 출근 완료 & 기사 모니터링**

- 노선으로 오늘의 To-Do 리스트를 체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주요 언론사에 뉴로메카 관련 소식이 게재되었는지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리스트업합니다.

- **10:00 AM | 주간 업무 보고**

- 목요일 오전은 팀원들과 한 주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주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 **12:30 PM | 점심시간**

- 성수동 맛집 탐방 시간! 성수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합니다. 😊

- **02:00 PM | 현장 촬영**

- 로봇 회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진풍경을 볼 수 있죠! 제각각 바쁘게 움직이는 다양한 로봇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제품의 특징을 영상에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 **04:00 PM | 편집 & 지표 데이터 확인**

- 촬영본 정리 후 본격적인 영상 편집에 들어갑니다. 작업 중간중간 기존 업로드 영상들의 조회수, 좋아요 등 주요 지표를 확인하며 어떤 요소가 유저들의 좋은 반응을 끌어냈는지 확인합니다.

- **06:00 PM | 일일 업무 정리 & 퇴근**

- 오늘 진행한 업무를 정리하고 내일의 우선순위 과제들을 체크한 뒤 퇴근!

03. 직접 경험하며 알게 된 것들

물론 단순히 영상 촬영과 편집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부터 전시회 현장 대응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와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입사 2주 차, 첫 전시회 현장에서

입사 2주 차에 나간 전시회는 로봇을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터라 카탈로그를 정독하고 선배님들께 물어가며 현장에 적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에이르(EIR)

무엇보다 전시 기간 내내 다양한 로봇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향후 콘텐츠 기획 시 강조해야 할 포인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짧게나마 에이르에 대해 설명하는 중...

관람객들에게 직접 이벤트를 안내하고 짧게나마 제품을 소개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5명 남짓의 적은 숫자였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 사양을 늘어놓는 것보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먼저 찾아내 짚어주는 것!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실 영상을 많이 만들어보진 않았습니니다. 이전엔 영상이 아닌 카드뉴스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위주로 기획하고 제작했었죠. 하지만 뉴로메카에 입사한 이후로는 주로 유튜브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특히 생생한 현장감을 담은 POV(Point Of View) 컨셉의 숏폼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브랜드의 신뢰감과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반응할 유머러스함을 담기 위해 많이 고민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 영상 보러가실래요? (틈새 홍보) →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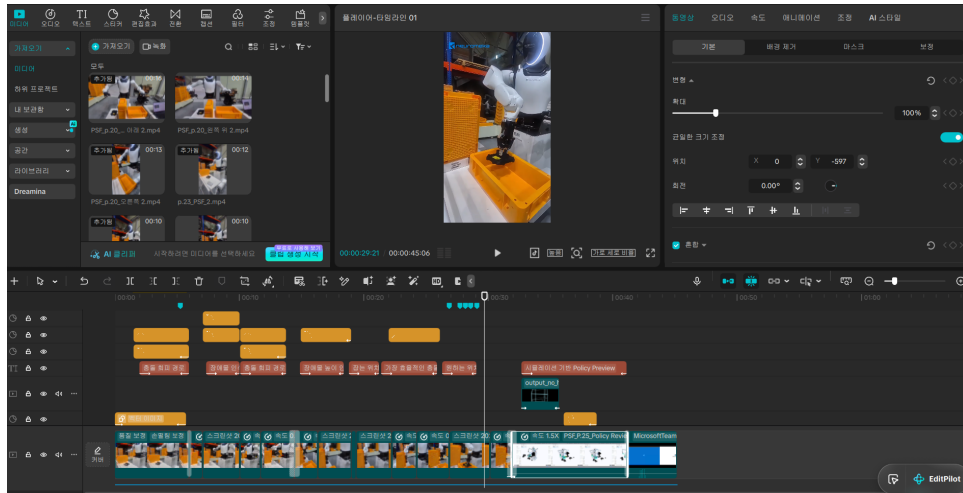
뉴로메카 건물 2층에는 다양한 로봇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쇼룸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방문객이나 내빈이 방문하면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로봇 회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2층에 있는 로봇들

저에게는 이곳에서 제품 홍보 영상을 촬영했던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면서 제품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영상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던 경험이었는데요. 덕분에 로봇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신제품 출시 시점에는 제품 홍보 게시글 작성부터 홍보 포스터 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작업한 콘텐츠들이 괜찮은 평가를 받으면서,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과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매일 보는 캡컷 인터페이스

덕분에 캡컷 마스터가 된 것도 인상 깊네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새롭게 하면서 배우고 얻는 것들은 언제나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PSF와 친해지기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단어 중 하나가 'PSF'였습니다. 뉴로메카의 핵심 기술인 PSF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 제작부터 콘텐츠 기획까지 다방면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좋은 기회로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워크숍을 통해 PSF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향후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찬스로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엔 없지만(;;) 너무 맛있었던 소고기

기술적 깊이가 깊은 분야인 만큼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모르는 부분은 스스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PSF와 어색한 사이지만 자주 보다보면 꽤 친해져 있지 않을까요? 😊

👉 **PSF(Physical Skill Foundation)**가 뭔지 궁금하시죠? → [링크](#)

이외에도 뉴로메카 유튜브에서 다양한 로봇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4. 뉴로메카에서 보낸 시간, 보내야 할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 어느덧 인턴십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돌아보면, 생소했던 로봇 시장에 적응하고 직접 만든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하며 스스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도 직접 부딪쳐보고,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를 맡아보기도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디자인하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잘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완성도 높은 결실을 맺어보고 싶습니다. 늘 따뜻하게 이끌어주시는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